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pp.121~13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6

불교의 '훈습'과 원불교 '마음대조'의 교육적 의미

金 福 喜

(원광대학교)

요

불교의 훈습과 원불교의 마음 대조(對照)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불교에서 훈습은 인간의 마음이 변이(變異)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주체성과 창조성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습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훈습(熏習)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원불교의 마음대조(對照)는 일상에서 자신의 본성(本性: 自性)을 회복하여 지혜롭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 방법으로 마음일기를 기재한다. 교사는 마음일기에 대한 문답 감정을 해주면서 본질적 만남의 관계 형성이 되어진다. 본고에서는 불교의 훈습과 원불교의 마음대조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논의하면서 교육적 의미의 시론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훈습, 정법훈습, 염법훈습, 마음대조, 마음일기

I. 서 론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 사람이 비록 만물 가운데 가장 영특하다 하나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그 최령의 자격을 이루지 못할 것”¹⁾이라고 한다.

1)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3, 730쪽.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으니, 하나는 과학 교육이요 하나는 도학 교육이라, 과학 교육은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 교육은 정신 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다.”²⁾ 그러므로 도학으로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으면 안과 밖의 문명이 겹친하리라 기대된다. 교육을 통해 참다운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의 근원적인 목표는 성자의 삶이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근본을 살려내는 ‘소리없는 교육혁명’인 것이다.³⁾ ‘최령의 자격’을 발휘할 교육의 힘, 과연 불교철학의 훈습과 원불교학의 마음대조를 통하여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주체성과 창조성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습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훈습(熏習)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마음대조(對照)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자각하여 원래의 마음(本性, 自性)에 대조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대조하면 지혜롭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본고는 불교의 훈습과 원불교의 마음대조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II. 불교의 훈습

1. 훈습의 개념

훈습은 불교에서 사람의 언행이나 세력의 인상이 마음 속에 머물러 뿌리박는 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산스크리트 vsan의 한역(漢譯)으로 향을 피우면 향내음이 몸에 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이나 입, 뜻으로 표현되는 선·악의 행위도 그 인상이나 기분이 마음 속에 스며들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표현되는 것을 현행(現行)이라 하고, 마음 속에 머문 언행의 세력을 습기(習氣) 또는 종자(種子)라 한다. 이들 종자나 습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 훈습은 다시 현행을 낳게 되는데 이를 종자훈습이라 한다.

《기신론(起信論)》에서는 4훈습을 주장하는데 첫째 무명훈습(無明熏習)은 무명이 진여(眞如)에 훈습하는 것이며, 둘째 망심훈습(妄心熏習)은 망심이 무명에

2) 《원불교전서》, 730쪽.

3) 박영훈, 《마음공부》, 합천: 목민사, 2000, 머릿말.

훈습되어 생사, 곧 미혹(迷惑)의 세계의 고(苦)를 나타내는 것이며 셋째 망경계훈습(妄境界熏習)은 망경계가 식(識)에 훈습되어 아집·법집(法執)을 크게 하는 것이고 넷째 정법훈습(淨法熏習)은 내 몸에 진여의 법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 진여훈습(眞如熏習)이라고도 한다.

“훈습의 뜻은, 세간의 의복에는 실재는 향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 사람이 향으로서 훈습시키면, 그 때문에 곧 향기가 있는 것과 같이 이 또한 그러하다. 진여정법에는 실제 염(染)이 없지만, 단지 무명으로서 훈습시키면, 그 때문에 곧 염상(染相)이 있는 것이다. 무명염법에는 실제 정업(淨業)이 없지만, 단지 진여로서 훈습시키면, 그 때문에 곧 정용(淨用)이 있는 것이다.”⁴⁾

일심의 여래장 진여(眞如)가 무명의 연을 만나 미계(迷界)로 유전하여 중생이 되는 유전연기(流轉緣起) 과정과 수행과 신심을 통하여 오계(悟界)로 환원하여 또 다시 여래가 되는 환멸연기(還滅緣起)의 두 과정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염법훈습(染法熏習)과 정법훈습(淨法熏習)이 있다.

원효는 그의 소(疏)에서 ‘진여정법(眞如淨法)이란 바로 본각(本覺)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명염법(無明染法)은 바로 불각(不覺)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실로 하나의 식(阿梨耶識)에 이같은 두가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서로 훈습하여 두루 염(染)과 정(淨)을 생기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훈습의 종류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훈습	-정법훈습 - 진여(眞如)----- 무명에 훈습 -- 향상적 환멸(還滅)-- 悟界구현
	염인(染因) = 무명(無明)
	망심(妄心) = 업식(業識)등--진여에 훈습 -- 타락적 流轉 ---迷界顯現
	-염법훈습 - 망경계(妄境界) =육진(六塵)

진여는 아리야식의 각(覺)의 작용이며, 무명은 불각(不覺)의 작용이다. 각(覺)과

4) 전종식, 위의 책, 142쪽.

熏習義者, 如世間衣服實無於香, 若人,以香而熏習,故則有香氣,此亦如是.眞如淨法實無於染,但以無明而熏習,故則有染相. 無明染法實無淨法, 但以眞如而熏習, 故則有淨用.

불각(不覺)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각 속에 각(覺)이 있으며, 시각(始覺)속에도 불각이 있다. 요컨대 진여의 각(覺)은 우리의 마음에서 향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반류(反流)의 힘이라 하며, 또한 오계(悟界)에 환원하는 의미로서 환멸문(還滅門)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의 악(惡)의 힘은 불각(不覺)이며, 미계(迷界)를 나타내는 유전문(流轉門)이다. 불각은 각의 염상(染相)이며, 각(覺)은 불각 속에 살아있는 정화(淨化)의 힘이다.

본래 평등일미(一味)의 일상(一相)은 상대가 없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無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진여의 정법(淨法)에는 실제 염상(染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여에 무명이 혼숙되어 차별의 상인 염상(染相)이 나타나는 것이다. 차별의 상(相)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 선(善)은 상대적 악(惡)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한 차별상이 염상(染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2. 훈습의 교육적 의미

랑에펠드(Langeveld)가 “인간이 교육하고 교육받고,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⁵⁾ 라고 한다.

교육의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점은 본각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훈습을 통하여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위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서인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인간 생명의 위대함(大)과 그 위대한 생명이 피안의 세계를 향하여 몰입해 가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乘)을 의미한다. 교육의 생명력은 이처럼 위대하고 영원한 인간생명을 미망의 세계에서 지혜광명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찍이 붓다가 성도(成道)하였을 때, 그는 이 연기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를 증득하였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 이 무명을 뿌리로 삼는 번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해안으로서 체득하였던 것이다.

범부가 허공이라고 눈으로 보는 것은 색인 것이다. 범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색(色)은 범부의 분별사식(分別事識)에 의한 것이고, 그 분별사식은 진심(眞心)이 아

5) Bollnow, 오인탁·정혜영 공역, 《교육의 인간학》, 서울: 문음사, 1969, 67-68쪽.

닌 망념(妄念)인 것이다.

‘허공의 상(相)은 망법(妄法)으로서 체(體)가 없고 실(實)이 아니다.’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색(色)에 의하여 마음의 생멸(生滅)이 있으나, 색은 본래마음의 인식작용이므로 그 색은 본래마음이다.

외계(外界)의 실재가 아니며 일체의 인식대상은 유식(唯識) 즉 오직 마음이고, 마음이 망념(妄念)으로서 생기(生起)하여 외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신론’의 유심론(唯心論)적 입장이다. 그래서 마음이 망념의 생동(生動)을 떠나면, 일체의 인식대상은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이때 주관과 객관의 일체 대립이 소멸되어 유일한 진심(眞心)만이 바로 진여(眞如)로 합일(合一)되어, 바로 그 진심이 일체처에 두루 퍼져있다는 것을 ‘허공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여래의 광대한 본각(本覺)의 지혜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여래의 성품인 것이다.”⁶⁾

인간은 불성을 가졌으나 무명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을 윤회한다는 말에서, 불교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선(善)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선은 단순한 상대적 의미로서 그리고 주어진 성선설이 아니다. 이 선은 일체의 고정관념을 극복·지양(止揚)한 가운데 나타나는 적극적 의미의 공(空)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공은 인간이 지혜로서 자신의 인식을 여실히 사유(思惟)할 때 비로소 가능성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 의미로서의 불성의 개념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적 가능성으로서, 일체의 대립을 극복함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빛’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⁷⁾

문훈습(聞熏習)⁸⁾의 습기는 깨끗한 경계를 지향하여 그 경계의 향기를 훈습하는 힘이다. 이 훈습의 힘은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에 의해 일어난다. 교육은 인간의 내면적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훈습의 개념적 접근은 교육자들에게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주체성은 지혜에 의해 불성이 드러날 때 실현 가능하다. 지혜로운 인간은 평등과 자유를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6) 전종식, 《대승기신론정해》, 서울: 대승기신론 연구회, 2001, 206쪽.

7)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1, 91-92쪽.

8)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에 눈 뜰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끔 듣고 생기는 지혜. 《불교학대사전》, 서울: 흥법원, 1988, 431쪽.

Ⅲ. 원불교의 마음대조

1. 마음대조(對照)의 개념

마음을 대조(對照)한다고 할 경우, 대조란 경계(境界)를 따라 일어난 마음을 원래의 마음에 비추어보는 것을 말한다. 소태산(1891-1943)은 일상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법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心地)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다.⁹⁾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靈丹)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심지가 그르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된다.¹⁰⁾

심지(心地)는 마음바탕으로써 심전(心田)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도가(道家)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見性)이라 하고 심전을 계발하는 것을 양성(養性)과 솔성(率性)이라 하나니, 심전 계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취사(取捨)의 세 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다.¹¹⁾

“그 요령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시 자성의 계 정 혜를 찾는 것이요, 부연하여 그 실례를 들어 본다면, 때로 혹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무슨 일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있거든 바로 자성 반조하여 원래에 자타없는 그 일원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물욕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에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

9) 《원불교전서》, 〈대종경〉 수행품 1장, 140쪽.

10) 《원불교전서》,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30장, 877쪽.

11) 《원불교전서》, 〈대종경〉 수행품 60장, 180쪽.

로 혹 없는 데에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에 없지 않은 묘유(妙有)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이와같이 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닫는 동시에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요 성현의 작용”¹²⁾ 이라고 한 것이다.

참다운 자성 반조의 공부는 견성을 하여야 하게 되지마는 견성을 못한 이라도 신성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조(返照)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음대조는 마음일기를 기재하면서 주어진 일이나 마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게 한다. 동시에 스스로 객관적으로 마음작용에 대하여 왜 그러한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분별성과 주착심)을 찾고 그 속에 내재된 마음의 원리를 스스로 연구해보도록 한다.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의 흐름을 그대로 보고 어떠한 성급한 판단을 보류할 때, 그 문제의 형태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다. 문제의 명확한 파악과 그 문제 원인을 스스로 연구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향과 길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¹³⁾ 그러면 스스로 마음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자칫 일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풀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이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혹은 그것을 연상하거나 추론하지 않는다. 그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망상을 제거하고 본래 원만한 각자의 본성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順)하게 발하면 선(善)이 되고 거슬러 발하면 악(惡)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발하면 정(正)이 되고 굽게 발하면 사(邪)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正邪)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智愚)의 분기점이 된다.¹⁴⁾

이처럼 본래 선악 염정(染淨)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凡聖)과 선악의 분별

12) 《원불교전서》,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7장, 915-916쪽.

13) 조원향, 〈무시선 경험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변화〉,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6쪽.

14) 《원불교전서》,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0장, 821-822쪽.

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靈知)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境界)를 대하매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다.¹⁵⁾

인성교육은 인성을 개조하여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인성을 밝히고 길러내는 것이다.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윤리는 개개인의 개별성과 거리가 있으며 피교육자의 도덕적 기질변화를 시키기엔 미흡하다. 교실에서의 학습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마음대조의 교육적 의미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알면 그 본성을 기르고 그 본성을 기르면 곧 성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인(知人)하면 지천(知天)하지 않을 수 없고 지천하면 지인할 수 있다.”¹⁶⁾ 그러므로 지천이란 천(天)이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자체가 되는 상태이다. 중용에서 솔성이란 바로 이러한 천명(天命)을 따르는 것이다.

불의의 음식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구복(口腹)의 욕심이야 넘쳐흐르겠지만 도심이 그에게 조용히 이르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불의의 음식이다.’라고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솔성(率性)이라 하고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 한다는 것이다. ... 천명은 곧 본마음으로 상제를 밝게 섬기는 학문이며 ... 또한 인간에게 명부(命賦)된 성으로 호덕(好德)의 정(情)과 택선의 능력이다.¹⁷⁾

“염처수행을 하면 ‘생성과 소멸을 동반하지 않는 흐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보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열어간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어 삶의 본질에 가까워

15) 《원불교전서》,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822쪽.

16) 《全書》, 〈中庸自箴〉, 권2. “知人者知人之所 以爲人也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知此則知人矣 故曰思知人 不可以不知天也.”

17) 《全書》, 〈중용자잠〉, 권1. “不義之食在前 口腹之慾溢發 心告之曰勿食哉 是不義之食也 我乃順其所告卻之 勿食茲之謂率性 率性者循天命也 ... 求天命於本心者聖人昭事之學也 ... 天賦我性授之以好德之情畀之以擇善之能.”

진다.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갈등과 번뇌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즐거운 마음과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이 선(善)심소이다.

삶 가운데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명확히 지켜보는 염처수행을 하지 않으면, 삶의 제 모습을 회복시키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 삶의 제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환멸문의 수행으로서 갈애를 끊어 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 생각이 환멸문 쪽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반대로 유전문 쪽으로 가면 번뇌와 갈등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난 순간 분별을 바꿔 무분별의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선(善)심소이다.¹⁸⁾

매순간 삶 전체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운이 번뇌로 작용하면 번뇌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요, 수행의 힘으로 작용하면 고요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떠오르는 한 생각 속에는 여래의 청정본연의 모습과 번뇌의 모습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의식이 일어난 순간을 볼 줄 안다. 지금 우리는 의식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인지 또는 버려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모른다. 현상은 개개인의 속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화난 마음이 일어나려는 순간 통찰력이 향상되어 그것을 보게되면, 대해(大海)의 큰 힘에 의해 그 순간 청정해져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보통은 현상에 따라 들뜬 마음이 일어났는데,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서 집중력이 향상되면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그 순간을 본다. 나중에 그 고요함의 힘에 의해서 현행이 종자인 들뜬 흐름에 연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종자가 말라버린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고요한 대해(大海)에 제 모습을 비추듯이,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분명히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집중력과 관찰력을 길러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가는 것'이다.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이것을 각심초기(覺心初起)라고 했다.¹⁹⁾

식변(識變)이란 말은 '인식의 장(場)에서의 변화'라는 말이다. 견분과 상분이 함께하고 있는 인식의 장을 부득이 나누면 견분과 상분이지만, 이것은 선후의 관계는 아니다. 이 장(場)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변해가기 때문에, 장(場)의 내용이 순간순간 바뀌어간다. 전후찰나의 상속인 시간과 관계의 장인 공간

18)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153쪽.

19) 정화, 같은 책, 39-40쪽.

에서 앎의 장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장의 내용이 다음 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분별된 현상이 지속적으로 분별을 만들어가는 식장의 변화는 중생의 번뇌의 흐름이요, 여래는 일체지(一切智), 무분별지(無分別智)의 흐름이다. 분별과 번뇌의 흐름을 무분별지의 흐름으로 바꾼 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한다.²⁰⁾

인성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수행되어질 때 성과가 있다. 일상에서 동정간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마음을 공부한다.

본고에서의 마음공부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 대조하는 방식이다. 상황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그 일이 있기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일념미생전: 一念未生前) 마음을 대조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²¹⁾한다.

소태산 대종사(1891-1943)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²²⁾고 하였다.

인간 완성의 길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선을 쌓고자 함은 인간의 본연성이다. 다만 인간이 이러한 본연성을 어기지 않고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면 인간은 호연지기가 가득하게 되고 신령스러움은 하늘의 덕과 합하게 된다.²³⁾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행위란 타율에 의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자율에 의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덕률, 즉 자유의 법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훈습과 마음대조의 교육적 의미

훈습과 마음대조의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불교철학에서 아리아식은 인간의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 의지(依止)로서, 곧 인식의 뿌리이자 종자식

20) 정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울: 장경각, 2000, 115쪽.

21) 《원불교전서》,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 819쪽.

22) 《원불교전서》, 〈정진〉 일원상의 수행, 24쪽.

23) 정혜정,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과 ‘지천’의 수행론〉,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1권, 2000, 47-48쪽.

을 뜻한다. 그러므로 훈습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고 변이(變異)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사는지에 관한 철학적 규명이라 할 수 있다.

제 8식은 우리의 거체(擧體)적인 삶의 장으로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전부를 실어보낸다. 삶은 삶의 장으로서 순간순간 자기 변화하는 전체이다.²⁴⁾ 제 8식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의 장(場)'이다. 각각의 식(識)의 작용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모두 하나 된 장(場)에서 같이 하고 있다. 매순간 전체의 식(識)이 동시에 흐르면서 변해가고 있다.²⁵⁾

부처님의 가르침인 8정도나 6바라밀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히 분별과 무분별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것을 통해 분별의 힘은 약해지고 무분별의 힘은 커지면서, 찰나에 일어나는 전체의 마음작용이 바뀐다. 현행하는 이 순간의 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현행하는 힘을 잘 관찰하면 고요함으로 흐르게 된다. 수행법의 특징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주시만 한다. 그러면 현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릇되게 인식하는 바를 알게 된다. 수행은 삶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분별된 언어의 회롱에 속지 않고, '삶이 어떤 식으로 연기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여 분별을 떠난 청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²⁶⁾

수행을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란 만남의 조건에 따라 '매순간 변하는 연기관계의 세계'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나만의 세계를 고집할 근거가 없어지면 서, 나와 대상이 항상 어우러져 있는 전체 속에서 창조적인 나를 키워간다. 수행을 하여 '나'라는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삶의 고정화로 인한 소외와 선악시비의 세계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열린 세계로 나아감을 말한다.²⁷⁾

훈습에는 수행이나 정진에 의해 무루종자인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바, 이는 진여훈습(眞如勳習)이다. 모든 인식대상이 망심의 헤아림 때문에 나타나는 허환임을 깨닫고, 생멸이 없는 궁극의 진리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내면에서 끌어주는 진여의 힘이 있는 바 이것이 수행이 가능한 이유이다. 우리 중생이 수행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본래에 나의 본성과 진여가 하나이며, 망녕된 분별심을 비우면 곧 이를 얻게 된다. 이것은 진여훈습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을 하여 우리의

24) 정화, 같은 책, 26쪽.

25) 정화, 같은 책, 32-33쪽.

26) 정화, 같은 책, 33쪽.

27) 정화, 같은 책, 35쪽.

삶을 바로 보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이 해소된다. 우리 자신의 몸과 정신이 편안해졌을 때 다른 관계도 원만해져서 개인과 집단을 갈라놓은 힘을 약화시킨다.

마음대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다. 마음을 대조한다는 것은 경계(境界)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이러한 마음이 있어지는구나! 하는 자각과 함께 원래마음(一念未生前)에 대조(對照)하는 과정이다. 동정(動靜)간에 일상의 삶에서 본성을 여의지 않는(不離自性)의 수행이 된다.

마음대조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작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상황과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본래 참본성에 대하여 알고 수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사고 과정의 전환이다.²⁸⁾

교육이란 인간특성의 변화가능성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기반이 부실하면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이는 가정 교육에서부터 그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일생을 두고 같고 닮아야 하는 인간특성이다.

대승기신론은 마음을 일심으로 설명함으로써, 현실적인 마음(俗)과 이상적인 마음(眞)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뜨린다. 현실적인 마음(生滅心)과 이상적인 마음(眞如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一心)의 두 가지 양태라고 본다. 그래서 생멸심과 진여심이라고 하지 않고, 심생멸과 심진여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마음 중 어느 마음도 일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각각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다.²⁹⁾

한 마음이 미하여 육취에 가는 이는 자성을 떠나는 것이요 동(動)하는 것이며 법계를 깨쳐 한 마음을 회복한 이는 자성에 돌아오는 것이요 정(靜)하는 것이라 비록 미하고 깨침이 다를지언정 그 본원인즉 하나니라. 이미 성인에게 더하지도 아니하고 범부에게 덜하지 아니할진대 부처님과 조사가 무엇이 사람에 다름이 있으리오. 썩 사람에 다르다 하는 것은 능히 스스로 마음을 잘 두호해 가지시는 것 뿐이니라.³⁰⁾

28) 조원향, <무시선 경험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변화>,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9쪽.

29) 정영근, <마음심>,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제21호, 1994. 328쪽.

30) 《원불교전서》, <수심결>, 제20장.

故로 云하사대 迷一心而往六趣者는 去也요 動也며 悟法界而復一心者는 來也요 靜也라하시니 雖迷悟之有殊나 乃本源則一也니라 所以로 云하사대 言法者는 謂衆生心이라하시니라 而此空寂之心이 在聖而不增하고 在凡而不減이라 故로 云하사대 在聖智而不耀하고 隱凡心而不昧라하시니 既不增於聖하고 不少於凡인댄 佛祖가 奚以異

육조 대사께서 이르시되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이 자성의 혜라 하시니, 만일 이와 같음을 깨쳐서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며 막히고 밝음이 둘이 아닌즉 이것이 곧 돈오 문에 정과 혜를 쌍으로 닦는 것³¹⁾이라고 한다.

가령 정(定)을 익히는 데에도 자성(自性) 정(定)을 모르는 사람은 번뇌를 누를수록 계속 일어나지만, 자성 정을 아는 사람은 번뇌가 눈 녹듯이 녹아나고, 혜(慧)를 닦는 데에도 자성의 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것에 집착하지만, 자성의 혜를 아는 사람은 결핍이 없는 본래 일원의 반야 광명을 얻을 것이요, 계(戒)를 세우는 데에도 자성의 계를 아는 사람은 사(邪)없는 것이 정(正)이요, 정(正)은 우리의 근본 자리임을 알아 천지와 더불어 일치하는 선행을 하게 될 것³²⁾이라고 본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³³⁾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처럼,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마음들을 일어난 줄만 알아두면 원래 상태인 원래의 마음(一念未生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원리인 것이다. 마치 호수에 돌맹이를 던져 파문이 일어나더라도 잠시 후, 원래의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V. 결 어

불성(佛性)과 자성(自性)에 대한 절대적 긍정은 인간이해의 공통분모로서의 출발이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불성을, 그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느냐?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은 삶의 모방이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이다. 교육의 임무는 학습자를 현실적 세계에 적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세계에 적응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진리에 대한 적응이 학습 목표인 것이다.³⁴⁾

於人이리오 而所以異於人者는 能自護心念耳니라

31) 앞의 책, 〈수심결〉 제26장. 如曹溪云心地無亂이 自性定이요 心地無癡가 自性慧라하시니

若悟如是하야 任運寂知하며 遮照無二則是爲頓門個者の 雙修定慧也니라.

32) 《한울안 한 이치에》,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82, 52-53쪽.

33) 《원불교전서》, 〈정전〉 좌선법, 65쪽.

마음대조를 학생들에게 지도해 본 교사는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갱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사랑이란 것을 체험하였다. 나의 고정된 우월의식과 편견, 허위의식의 틀을 깨고 그들을 진정으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나게 되는 평등함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만나졌다.”³⁵⁾ 고 한다.

또한 훈습의 관점에서 본 교육은 어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훈습을 하는 것이 곧 정법(淨法)훈습이며 환멸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진여는 아리야식의 각(覺)의 작용이며, 무명은 불각(不覺)의 작용이다. 진여의 각(覺)은 우리의 마음에서 향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는 반류(反流)의 힘이다.

실존주의 교육철학자인 슈프랑거는 교육의 결정적 임무는 인간을 내면적으로 눈뜨게 하는 것, 즉 양심의 각성(覺醒)이라 한다. 이는 비약적인 인간정신의 내면적 승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정리해 보면, 기신론에서 밝힌 정법훈습과 원불교의 마음대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전환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최령의 가치 실현은 본성(本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만남이다.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샘이 없는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이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쳐서 이에 의지하여 닦는 이는 이 최상승선이라 이름하며 또한 여래의 청정선이라 이름하나니라.³⁶⁾

유식불교는 현실적인 마음의 바탕이 되는 아뢰야식을 전환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음의 본래 참된 모습으로서의 식의 실성(實性)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본래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즉 우리 각자는 근본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라는 자각이다.

34) 김귀성 노상우 공저, 《현대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2), 40쪽.

35) 김용혜, 〈중등학교에서의 마음공부〉,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마음공부》, 원광대 도덕교육원, 2001, 8쪽.

36) 《원불교전서》, 수심결 제23장.

圭峰이 總判先悟後修之義云호대 頓悟此性이 元無煩惱하고 無漏智性이 本自具足함이 與佛無殊하야 依此而修者는 是名最上乘禪이며 亦名如來清淨禪也라

37) 정영근, 〈마음心〉,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제21호, 1994, 328쪽.

교육이란 학생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가치를 계발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물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이치에 맞게 하고, 학생들은 이를 배우는 일이다.³⁸⁾ 본고는 미흡하나마 근래 학교와 사회 및 가정에서 요청되는 인성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시도해 본 것이다.

《참고문헌》

- 《원불교전서》,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93.
 《한울안 한 이치에》, 익산 : 원불교출판사, 1982.
 《全書》, 〈중용자집〉, 권1.
 《불교학대사전》, 서울 : 흥법원, 1988.
 김귀성 노상우 공저(2002), 《현대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김용혜(2001), 〈중등학교에서의 마음공부〉,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마음공부》, 익산: 원광대 도덕교육원.
 남궁달화(2001), 〈한국 대학도덕교육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연구원, 《21세기 문명사회와 대학의 도덕교육》, 익산시: 원광대학교.
 이지중(2000), 〈훈습의 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
 이지중(2000), 〈훈습의 개념적 이해와 그 교육적 함의〉, 서울: 한국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11권.
 박영훈(2000), 《마음공부》, 합천: 목민사.
 박선영(1981),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 동화출판공사.
 Bollnow, 오인탁·정혜영 공역(1969), 《교육의 인간학》, 서울 : 문음사.
 전종식(2001), 《대승기신론정해》, 서울: 대승기신론 연구회.
 정혜정(2000), 〈다산 정약용의 '성기호설'과 '지천'의 수행론〉,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11권.
 조원향(2000), 〈무시선 경험을 통한 심리적 요인의 변화〉,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근(1994), 〈마음心〉,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제21호.
 정화(2000), 《생활속의 유식30송,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울: 장경각.

38) 남궁달화, 〈한국 대학도덕교육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연구원, 《21세기 문명사회와 대학의 도덕교육》, 익산시: 원광대학교, 2001, 44쪽.

원고접수: 5월 21일 1차심사: 6월 11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원불교학

소속: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 연구원 및 교학대학 강사

② 관심영역: 불교교육학, 원불교사상

③ 주요논저: 〈나 없으매 큰 나 드러나고 I-IV〉

④ E-mail: inso9@hanmail.net

The Vāsanā in Buddhism with the Mind Reflect in WonBuddhism and it's meaning of Education

Kim, Bok - He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d the meaning of education between the Vāsanā in Buddhism and the 'Mind Reflect' in WonBuddhism. The Vāsanā in Buddhism is well brought out in one's mind change. Our subjectivity and creativity depends upon how it is Vāsanā? Vāsanā have a potent influence which teacher and student and family's form a view of worth.

The Mind Recording in WonBuddhism put into truth action to revive one's spirit everyday. And by that the way to do writing the Mind Recording. The teacher become essentially meeting with their students to do in the form of question and answer. Thus I want to open a new sight status and theory of education for the young people in which, based on the 'Vāsanā' in Buddhism with the 'Mind Reflect' in WonBuddhism, I want to find out applying method.

Key words : Vāsanā(熏習), General Description of Pure Influence, Activity of Confused Influence, Mind Reflect, Mind Recording,